언어 사용, 신중하고 신중해야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보국사 주지

지구촌 시대이다 보니 다른 나라에 갈 일이 많다. 필자 역시 불교계의 각 국가들과 불교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금강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또한 탈핵운동에도 참여하다보니 이웃국가 종교인들과 교류할 일도 많아졌고 팔레스타인, 몽골에 올리브나무 심어주기 운동과 종교간 대화운동도 하느라 비행기에 탑승할 일이 일상다반사다.

다른 나라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관신고서(稅關申告書)'라는 게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관신고서를 쓰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 세관 신고서 제출 의무는 신고할 일이 있는 사람만 지니도록 하고 있다. 값이 비싸고 특별하거나 질병을 옮길 병원균을 지니고 있는 동식물만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가 없는 이는 아무 일(申告) 없이 자유롭게 신고대 앞을 지나게 해서 아주 좋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웃을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겪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제안한다.

얼마 전 탑승한 비행기에서 이 같은 안내방송이 나왔다.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신고서 작성, 제출이 불요(不要)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음도 '불요함' '부료함' 등으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세관신고서 작성 不要' 안내방송
불명확한 한자 사용에 이해 어려움
언어는 곧 정체성… 바른 사용을

이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서류 쓸 일(作成)도 낼 일(提出)도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될 일이다. 혹은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고 해도 된다.

근래 교화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어려움 호소 가운데 하나가 '스님의 한국어가 꽤 어렵습니다'이다. 이는 듣고 보는 이들이 제대로 한국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는 자기 생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바탕과 기본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세관신고서 쓸 일(必要)이 없는 사람은 쓰지(作成)말고 지나 가십시오'라고 순우리말로 썼을 때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가 불명확하게 인식할 한자어를 남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도, 바르지도 않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바르게 고쳐서 안내방송을 하기 바란다. 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이기 때문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글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불교에서 말이나 언어로써 지은 죄는 '구업(口業)'이라 하며, 여러 악업 중 제일 무거운 업보이다. 〈천수경〉의 첫 머리에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 나오는 이유도 구업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세상이 다 그렇지만 기본 생활을 바르게(正) 해야 한다.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생각의 표현인 말을 바르게 해야 바르게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 삶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불자들에게도 행복일 것이다.

위험사회와 불안 관리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체감 온도 35도의 찜통더위가 여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적인 삶의 양식'이 바로 지구별을 훼손하고 지구촌의 온갖 중생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어찌 기후 위기 뿐이랴. 식물 세계의 보살인 '벌꿀'은 농약과 전자파에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객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구분심의 늪에 빠져 뜨거운 '불 칼'을 들고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면서 지구별을 화탕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새삼 〈위험사회〉라는 저서를 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이 생각난다. 그는 한국불교를 매우 좋아했다. 울리히 벡은 현대인의 삶을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성찰적 근대화의 핵심은 바로 연기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위험사회라고 하는 매우 불안한 사회에서 불안에 주눅이 들지 않고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개인적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불안은 인간존재의 필수적인 감정일 것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오온인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수(受)에 해당한다. 현대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종래에는 감정이 마음의 부속품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마음이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론도 만만치 않다. 불안은 인간 감정의 제일 심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위험사회의 불안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광범위하다.

위험사회 불안, 예측 불가능성 높아
불안은 실체 아니라 연기적임 나타내
이를 다스리는 지혜도 연기법에 있어

최근의 감정은 우리 안에 내장된 것이 자극받아 표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구성된 감정 이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감정은 평소에 잠자고 있다가 자극이 들어오면 깨어나는 반응성 장치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 낸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감정의 수동자가 아니라 감정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은 13살이 된 라일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춘기를 통해 라일라의 감정이 통합되고 열린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정신과 교수는 '영화가 불안을 악당으로 보지 않았고, 결국 나쁜 감정이라는 건 없고 각 감정이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평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생기는 불안에서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의 화두가 다가온다. '수즉시공, 공즉시수'가 아니든가. 불안은 바로 실체가 아니라 연기적임을 나타낸다. 불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도 연기에 있다. 불안은 우리의 큰 수행처다.

社 說

홍대선원 '행턴'이 주목되는 이유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은 소위 MZ세대 핫플레이스다. 단순히 위치가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위치해서가 아니다. 그 시도들이 기존 불교 포교와는 다른 층위에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홍대선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저스트비 인턴쉽 행턴'이다.

'행턴'은 한국불교계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와 인턴의 합성어다. 현재 홍대선원 행턴으로는 국내외 대학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홍대선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불교 신행프로그램 기획 및 사찰 운영에도 동참하고 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행턴'에 대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홍대선원의 새로운 시도인 '행턴'은 사찰 운영과 불사 기획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사찰공동체 안에서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수행과 습의에 집중된 기존의 단기출가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자중감이 있는 현 세대는 기회가 오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시한)"는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사찰 신행 프로그램과 행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행 정진하는 '행턴'은 MZ세대 특징 중 하나인 '자중감'을 고양하는 포교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불교계는 '행턴'과 같은 포교 프로그램, 단기출가 모델을 어떻게 확장시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포교에 종단적 관심을

장애로 인해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불자를 위한 〈종단본 불교성전〉의 점자책 〈점자 불교성전 제4권〉이 발간됐다. 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서울 광림사 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과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 방문, 장애인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점자 금강경〉을 보시하고 다양한 점자 불교서적 발간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고 있다.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불교의 평등 자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30여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에 힘쓰며 연화원을 이끌고 있다.

장애인 포교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너무 많이 회자돼 굳이 더 첨언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럼에도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긍정의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한국불교 포교의 맹점인 원력있는 불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제일 아나율은 시각장애인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범불교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8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8월 2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